

<요 약>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대기업을 연이은 부도 사태는 경기 침체의 심화와 금융 및 외환시장의 마비를 야기하여 국제통화금융(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도입하기에 이르렀음.
- IMF구제금융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는 지대할 것이며, IMF의 정책 개입은 경제 운영 기초의 수정과 함께 산업 전반의 구조조정이 초래될 것임.
- 이러한 과정에서 건설산업은 수주산업과 파생산업이라는 고유의 특성으로 부도 급증 등 부정적인 영향이 여타 산업에 비하여 심각할 것이므로 실천가능한 전략적 대응방안이 도출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IMF구제금융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진행 단계별·경제 주체별 전략적 대응방안을 통해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자 함.

2. 연구 범위 및 구성

- 본 연구는 현 상황과 IMF의 프로그램에 대한 정성적·정량적 분석을 통하여 향후의 상황을 단계별로 시나리오화하여 전략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그림에서와 같이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2장은 IMF구제금융에 대한 개관을 살펴보고, 제3장은 IMF 충격에 따른 1998년 경제 전망 및 산업별 전망을 제시하며, 제4장은 1998년 국내 건설과 해외건설의 최근 동향과 향후 전망을 살펴보고, 제5장은 구제금융 시대의 건설금융과 건설자재, 건설인력, 부도산 등 건설활동에 소요되는 생산요소 시장의 향후 전망을 살펴보고, 제6장은 IMF 프로그램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경제 주체별·진행 단계별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음.

II. IMF구제금융 개관

1. IMF구제금융의 개요

- 12월 3일 한국 정부가 도입하기로 체결한 IMF구제금융은 수요국의 국제수지 개선을 기본 목적으로 하나 최근에는 금융위기 해소를 목적으로 공여되는 경향이 나타남.

2. IMF구제금융에 따른 합의 내용

- IMF와의 합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거시정책, 금융부문 구조조정, 기타 구조개혁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거시정책 부문은 거시경제목표, 통화 및 환율정책, 재정정책이고, 금융 부문은 금융개혁법안, 구조조정 및 개혁조치이며, 구조개혁 부문은 무역자유화, 자본자유화, 기업지배구조 및 기업구조조정, 노동시장 개혁, 정보공개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3. IMF 정책 개입의 논거 및 조건

(1) IMF의 목적

- IMF가 구제금융을 제공하면서 국내 경제정책에 대해 개입하는 이유는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확보하자는 것이며, 정책개입은 국제수지의 개선을 통한 대외지불능력의 제고에 중점을 두게 됨.

(2) IMF의 요구 조건

1) 저성장 기조 유지

- IMF는 1998년 우리 나라의 경제성장률을 3% 이하 수준에서 억제하도록 요구하였음.

2) 재정 지출의 억제 및 세수 증대

- IMF는 우리 나라가 1998년 예산을 긴축 기조 하에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출 규모의 10% 추가 삭감과 증세 조치, 그리고 공기업 민영화를 요구하였음.

3) 긴축 금융의 운용

- IMF는 우리 나라가 15~20% 수준에서 유지해 오던 통화증가율을 1998년에는 13% 이내에서 억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4) 금융시장 개방의 가속화 및 투명성 제고

- IMF는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금융시장 구조의 개편과 금융관행의 개선, 그리고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의 대폭 확대 및 단기 채권시장의 개방 또한 요구하였음.

(3) 향후 전망

- IMF의 정책개입 목적이 국제수지 개선에 있으므로 경상수지 적자 폭에 따라 1998년 거시경제 운용에 대한 자율성 확보 정도가 결정될 것임.

III. 1998년 경제 전망

1. 경기 전망

(1) 개황

1) 1998년 국내 경기 불투명

- IMF의 구제금융 도입으로 1998년 국내 경기를 전망하기는 매우 어렵고, IMF 프로그램의 이행 여부에 따라 주요 경제지표의 변동 폭이 크게 차이가 날 것임.

2) 고물가저성장의 스태그플레이션 예상

- 공통적인 전망은 고물가를 동반한 저성장으로서, 1998년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양상이 나타날 것이며, IMF 프로그램이 성실하게 이행되지 않으면 부(負)의 성장과 7%의 물가 상승 또한 예상됨.

(2) 경제성장

- 긴축 재정 및 통화량 감소에 따른 내수 감소로 1998년 경제성장률은 당초 전망치인 6.1%보다 현저하게 낮은 2.0~2.5%의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3) 물가

- 환율 급등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과 세수 증대를 위한 공공요금 및 부가세의 인상 등으로 1998년 소비자물가는 5.0~5.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4) 금리

- 회사채수익률은 1998년 상반기에는 다소 변동 폭이 증가하여 17.0~20.0%에 이르나, 하반기에는 다소 하락하여 14.5~16.5%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5) 고용

- 대기업의 부도 및 연쇄 부도, 경기 불황의 장기화와 산업구조의 조정 과정에서 퇴출 기업의 수 증가로 인해 1998년 실업률은 4.5~5.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6) 국제수지

- 경상수지의 개선은 1998년 경제 운영의 목표로서, 경상수지의 적자 규모는 40~65억 달러에 이르고 무역수지 규모는 -20~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7) 환율

-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1998년 상반기 중 1,250~1,300원을 중심으로 변동세를 보이겠으나, 하반기에는 다소 평가 절상되어 1,150~1,200원 선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됨.

2. 산업별 전망

- IMF의 긴급 구제금융 도입으로 인해 향후 금융산업을 비롯하여 각 산업별로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시장개방 또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산업은 첫째, 건설산업과 일반기계산업, 둘째, 자동차산업, 석유화학산업과 철강산업, 셋째, 조선산업과 반도체산업, 넷째, 가전 및 섬유산업, 마지막으로 정보통신산업임.

※ 참고 : 1994년 금융위기 이후 멕시코 사례

- 1994년 12월 멕시코는 금융위기가 발생하여 1995년 2월 IMF로부터 긴급 구제금융을 도입하였고, 1995년 투자 위축과 긴축 재정으로 -6.2%의 경제 성장률, 52%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그리고 100만 명 이상의 대량 실업이 발생하였음.
- 1995년 1/4분기의 건설업 생산지수는 전 분기 대비 16.2% 하락하여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고, 이러한 추세는 지속되어 3/4분기는 전년 동기에 비하여 28.7% 감소하였음.
- 구제금융 도입 이후 1995년 전체 산업의 평균 생산지수가 7.8% 감소한 반면, 건설업은 23.5%나 감소하여 구제금융 도입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가 가장 큰 산업이었음.

IV. 1998년 건설업 경기 전망

1. 국내건설

(1) 1997년 동향

1) 개황

- 1997년 국내 건설경기는 정부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로 공공 부문의 토목공사가 호조를 보인 반면, 건축경기 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민간 부문의 건축공사가 크게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2) 건축허가

- 1997년 건축허가 면적은 전년 동기에 비하여 0.3%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주거용 건축허가는 1.3%가 증가하는 반면, 비주거용 건축허가는 2.2%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3) 건설계약

- 8월말 현재, 공사 금액을 기준한 일반건설업체의 계약실적은 50조 5,300억 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하여 2.7%의 저조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1997년의 계약실적은 전년 동기에 비하여 14.0%가 증가한 78조 3,700억 원의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① 공종별 계약실적

- 공종별 계약실적은 토목공사와 건축공사가 각각 19조 6,800억 원과 30조 8,600억 원의 규모로 전년 동기에 비하여 16.9%의 증가율과 4.6%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음.
- 토목공사와 건축공사의 계약실적은 전년 동기에 비하여 각각 25.0%와 8.5% 증가한 28조 5,300억 원과 49조 8,4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② 부문별 계약실적

- 부문별 계약실적은 공공공사와 민간공사가 각각 19조 1,000억 원과 31조 4,300억 원의 규모로 전년 동기에 비하여 3.3%와 2.4%가 증가하였음.
- 공공공사와 민간공사의 계약실적은 전년 동기에 비하여 각각 20.6%와 9.8%가 증가한 32조 4,600억 원과 58조 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③ 건설투자

- 1997년의 건설투자 규모(1990년 불변가격 기준)는 전년동기대비 2.5%가 증가한 59조 9,200억 원에 이르고, 공종별로는 건축부문의 건설투자는 다소 감소하는 반면, 토목부문의 건설투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 1998년 전망

1) 개황

- 1998년 국내 건설공사의 계약실적(경상가격 기준)은 전년 동기에 비하여 9.9%가 감소한 70조 5,9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부문별 계약실적은 공공공사와 민간공사가 전년 동기에 대비하여 각각 7.0%와 12.0%가 감소한 30조 1,900억 원과 40조 4,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공종별 계약실적은 토목공사와 건축공사가 전년 동기에 대비하여 각각 8.9%와 10.5%가 감소한 26조 원과 44조 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2) 부문별·공종별 건설계약

- 1998년의 부문별·공종별 건설계약액은 구성비 측면에서 민간 건축이 전체의 51.1%, 공공 토목이 30.7%, 공공 건축이 12.1%, 그리고 민간 토목이 6.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1997년에 대비한 1998년의 공중별·부문별 계약실적은 증감률 측면에서 민간 토목이 22.0% 감소, 민간 건축이 10.6% 감소, 공공 건축이 10.0% 감소, 그리고 공공 토목이 5.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전년 동기 계약실적 대비 가장 크게 감소하는 민간 건축을 주택과 비주택으로 세분하면, 주택은 20조 500억 원인 반면, 비주택은 16조 4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참고 : 금융위기 이후의 멕시코 건설업 동향

- － 멕시코건설업협회(CNIC) 건설업체의 생산액(경상가격 기준)은 1995년 1/4분기와 1~5월 동안 전년동기대비 각각 22.2%와 29.3%가 감소하여 상반기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 이를 불변가격으로 환산할 경우, 1/4분기와 1~5월의 건설업 생산액은 전년 동기에 비하여 각각 31.3%와 41.9%씩 감소한 수준임.
- 또한, 금융위기 이후 건설산업의 생산은 제조업과 전체 산업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고, 구제금융 도입 이후의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장기간 지속되었음.

1. 해외건설

(1) 1997년 동향

1) 개관

- － 11월 20일 현재,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건설 계약실적은 전년 동기에 비하여 40.5% 증가한 107억 4,390만 달러로 1980년 초반에 이은 두번째의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음.
- 또한, 최근의 수주 추세를 감안할 때, 금년 말까지는 계약실적이 151억 7,700만 달러에 이르러 사상 최고의 수주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 이처럼 해외건설 계약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은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개발도상국가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과 관련된 프로젝트가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함.
- 그러나, 최근 금융 및 외환불안의 심화에 따른 IMF 구제금융의 도입으로 국가 및 기업 신용도가 크게 하락하여, 향후 해외건설 계약실적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판단됨.

2) 지역별 수주실적

- 11월 20일 현재, 지역별 해외건설 계약실적을 살펴보면, 아시아 지역이 71억 9,630만 달러로 67.0%의 비중을 차지하였고, 기타 지역과 아프리카중동 지역에서의 수주실적 비중은 각각 25.0%와 8.0%로 나타나고 있음.

3) 공종별 수주실적

- 공종별로는 건축공사가 전체 수주액의 43.8%인 47억 230만 달러이며, 플랜트 공사와 토목공사의 수주실적 비중이 각각 34.8%와 19.8%임.

(2) 1998년 전망

1) 개관

- 1998년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건설 수주실적은 전년 동기에 비하여 36.2% 정도 감소한 96억 7,700만 달러(경상가격 기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이는 금융불안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과 더불어 국내 건설업체의 최대 시장인 동남아시아 지역의 외환위기에도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임.

2) 지역별 수주실적

- 1998년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건설 수주실적은 기본적으로 지역별 발주액과 국내 건설업체의 해당 지역 시장점유율을 추정하여 전망하였으며, 최근 국내의 금융 및 외환위기와 동남아시아의 외환위기 상황을 감안하였음.
 -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에서의 예상 수주 규모는 9억 8,600만 달러로 1997년에 비하여 18.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수주는 1997년에 비하여 37.8% 감소한 63억 2,800만 달러에 그칠 전망이며, 기타 지역에서의 수주실적 또한 전년대비 37.7% 감소한 23억 6,300만 달러로 전망됨.

V. 건설금융 및 생산요소 시장 전망

1. 건설금융

(1) 회사채 : 발행시장 위축

- 1998년 중 건설업체의 회사채 발행 규모는 전체 물량의 9.8%인 약 2조 9,000억 원으로 차환 소요(3조 388억 원)에도 미달할 전망이다.

(2) 주식 발행 : 하반기 중 여건 개선

- 1995년 이후 건설업계가 주식시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 규모가 급감하고 있는데, 1998년 상반기까지는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3) 은행권 : 자금조달에 한계 봉착

- 부채비율이 높고 수익성이 현저히 악화된 건설업계의 입장에서는 은행권으로부터의 차입이 더욱 힘들어 질 것임.

(4) 종합금융 : 여신규모 대폭 축소

- 향후 건설업계에 대한 종합사의 여신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종합사의 여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건설업계는 종합사의 영업정지로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것임.

(5) 종합 전망

- 1998년의 건설업 금융환경 여건은 금융혼란의 조기 수습 여부와 대외신인도 회복 시기에 따라 달라질 것임.
 - 금융시스템이 복구되기까지 최소한 3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그 이후에도 상당 기간 금융불안기를 겪게 될 것이며, 자금조달 측면에서 1998년 1/4분기까지 지대한 애로가 예상되며, 금리 수준 또한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자금을 조달하더라도 높은 금융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임.

2. 건설자재

(1) 수급전망

- 건설투자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1998년 중 건설자재 수요는 5% 이상 감소할 것이며, 환율 급등과 유가 인상에 따른 각종 원·부자재가격 및 물류비의 상승 등으로 건설자재업체들은 수요 부진과 함께 원가 상승의 이중고를 겪을 것으로 전망됨.

1) 시멘트

- 1998년 중 시멘트의 국내 생산능력은 설비 확충으로 1997년보다 4% 정도 증가한 6,500만톤 수준에 이르는 반면, 시멘트 수요는 건설수주액이 10% 정도 감소함에 따라 1997년 대비 6.7% 감소한 6,130만톤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2) 철근

- 1998년의 국내 수요는 1,018만톤으로 수요 감소폭이 여타 건설자재보다는 다소 낮은 5.0%에 그칠 것인 한편, 국내 생산량은 1997년보다 4.6% 감소한 1,016만톤 수준으로 전망되며, 수입은 더욱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3) 합판

- 건설투자의 감소와 더불어 환율 폭등으로 인한 가격 상승으로 대체 자재로의 전환이 예상되어 1998년의 합판 수요는 153만^m로 1997년보다 18.1% 감소하는 반면, 국내 공급은 104만^m로 11.6%가 증가할 전망이며, 따라서 수입량은 1997년의 절반 수준인 49만^m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임.

4) 레미콘

- 1998년의 레미콘 수요 또한 1억 2,580만^m로서 1997년에 비해 5.7% 감소할 것인 반면, 레미콘의 생산능력은 1997년말 현재 3억^m를 상회하고 있어, 생산업체의 공장 가동율은 4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

5) 골재

- 1998년 중 골재수요는 수요 비중이 높은 SOC 및 대형 국책사업의 축소가 예상되고 주택건설 또한 침체 국면에 접어들어 1997년 대비 8.4% 감소한 2억 180만^m로 전망됨.

(2) 가격 및 거래조건

- 건설투자의 감소로 건설자재의 공급부족 현상은 크게 완화될 것이나, 환율 상승에 따른 연료비 및 원부자재가격의 상승, 금리 인상, 유가 인상에 따른 물류비 증가 등으로 생산원가가 높아져 자재 가격은 인상될 전망이다.

3. 건설인력

(1) 수급

- 저성장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의 제고에 따라 건설시장에 대한 잠재적 노동공급이 급증할 것이고, 이로 인해 건설업의 임·이직률 또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전반적으로 건설업에 대한 잠재 입직자는 대폭 증가하겠으나, 유효 입직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반면, 이직자 수가 감소하여 실질 노동공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2) 임금

- － 전산업 및 제조업의 임금상승률과 유사한 추세를 보이는 건설인력의 임금상승률은 1998년에 정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4. 부동산

(1) 개관

- － 성장률의 둔화는 부동산경기를 위축시키며 부동산가격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며, 통화증가율의 축소 또한 가격 상승 요인을 제거하여 부동산가격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함.

(2) 토지

- － 전국 지가상승률은 안정 기조를 보이고 있으며, 경기 침체와 부도에 따른 기업 보유 부동산의 매각으로 대형매물의 가격은 폭락할 것으로 예상됨.

(3) 주택

- － 주택가격은 1990년 이후 하락하다가 1996년부터 소폭 상승하고 있으나, 1997년 11월의 아파트가격은 하락하였으며, IMF구제금융 이후 하락 폭이 커지고 있음.

(4) 빌딩

- － 사무실은 경기 침체와 부도의 여파로 매물이 쏟아지고, 규모와 관계없이 매매가와 임대가가 하락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IMF 구제금융이후 가속화될 전망이다.

(5) 상가

- － 상가는 이미 경기 침체로 인해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있으며, 향후 상가의 급격한 가격하락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VI. IMF합의사항 이행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

1. 건설산업에 대한 영향

(1) 금융 경색에 따른 영향

1) 부도업체 속출

- IMF사태로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며, 타인자본 의존도가 높고 제2금융권으로부터의 차입 비중이 높은 건설업체는 유동성 부족난이 가중되어 부도 사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음.

2) 금융비용 급증

- 일정 기간 차입금 평균이자율이 최소한 5% 이상 상승할 것이므로, 건설업체의 수익성은 크게 악화될 것임.

(2) 환율 급등에 따른 영향

- 환율 상승으로 인한 영향은 1차적으로 건설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져 건설업체들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2. 대응방안

(1) 기본방향

- IMF프로그램이 건설산업에 단기적으로는 큰 충격을 줄 것이나 기본적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의 체질개선과 산업구조 조정을 이룩할 수 있는 전기로 삼아야 할 것임.

(2) 시기별 영향과 대응방향

- 시기는 초단기, 단기, 중기의 3단계로 구분하고, 초단기를 제외하고는 IMF프로그램대로 경제가 운용되어 회복될 경우(시나리오 I)과 회복하지 못하고 더욱 악화될 경우(시나리오 II)로 구분하여 영향과 대응방안을 살펴보았음.

1) 초단기(1997년 12월 ~ 1998년 1/4분기)

① 영향 및 파급효과

- 금융기관 정비, 통화량 부족,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한 자금 경색으로 어음할인이 불가능하고, 긴급 자금의 대출이 곤란해짐으로써 건설업체가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큰 애로를 겪을 것이어서 부도업체가 증가하고 자발적 퇴출업체의 등장 가능성이 증가할 것임.

② 대응방향

- 건설업체의 부도 증가로 부채비율이 높고 유동성이 부족한 업체를 중심으로 1차 스크리닝이 자연스럽게 유도될 것이나, 소비자 및 우량기업 보호 차원에서 연쇄 도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별적 지원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2) 단기(1998년 2/4분기 ~ 하반기)

① 영향 및 파급효과

- 현재와 같은 금융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물가 불안정의 가속과 경기 악화로 부도 사태의 심화가 우려되며 재벌그룹 계열 대형 업체의 부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자발적 퇴출기업이 증가하고 제도(경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구조조정이 가속화됨.

② 대응방향

- 시나리오 I의 경우, 선별적 지원방안이 강구되고, 시장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
- 시나리오 II의 경우, 총체적인 산업 기반의 와해를 방지하기 위한 건설기업의 선별적 구제방안과 최소한의 생산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3) 중기 (1999년 이후)

① 영향과 파급효과

- 시나리오 I의 경우, 성장률 6%, 경상수지 개선, 그리고 공공투자 10% 증가 등 거시 경제지표들이 회복되어 건설투자 수요와 생산력이 균형을 회복하게 될 것임.
- 시나리오 II의 경우, IMF에 의한 통제가 더욱 강화되고 외국 자본에 의해 산업이 잠식되어 국내의 생산 기반은 와해될 것임.

② 대응방향

- 시나리오 I의 경우, 건설산업의 장기발전 전략의 모색, 하도급, 고용, 조달 등의 분야에서의 생산구조 건설화, 건설투자 수요와 생산력(건설업체 등 공급 측면)의 균형 도모, 건설업체의 전문화 기반 조성 및 건설참여 주체간의 역할

분담방안 정립, 재무상태의 개선, 그리고 정부의 생존한 기업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함

4) 인력 및 자재수급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 실직한 건설인력에 대한 재훈련 및 기능향상 훈련, 구직 알선이 활성화되고, 국산자재의 활용을 촉진하고, 건설자재업계의 원자재 공동구매를 유도하여야 함.

(5) 건설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

1) 국내 건설산업의 신뢰 회복

- 국내 관행과 관습의 국제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뇌물성 경비의 수수 근절, 음성적 거래 배제와 생산외 과외비용의 근절을 통한 원가 절감 도모, 그리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체에 대한 인위적, 시혜적 지원을 배제하여야 함.

2) 기업 재무구조의 개선 촉진

- 자기자본비율 및 사업수행여력을 입찰심사시 주요 변수로 심사하여야 함.

3) 전문화 및 계열화 유도

- 이를 위하여 사업수행능력 및 PQ심사시 평가기준의 공종별 세분화와 협력업체의 계열화 촉진이 필요함.

4) 생산조직의 유연화

- 이를 위하여 공동도급 확대전략으로서 “EPC + Financing” 등의 포괄적 허용,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동건설방식 활성화, 그리고 하도급체계 개선 유도가 필요함.

5) 건설관련 자격제도의 단순화·통합화

- 건설업체의 기술자·자본금·경력 임원 등 면허·등록기준을 완화하고, 면허요건보다 입찰평가 기준을 강화하여야 함.

6) 입찰과정의 투명성 확보

- PQ 및 적격심사 기준 개선,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도 폐지, 그리고 공공공사 발주체계의 유연성 제고가 요구됨.

(6) 기업의 대응방안

1) 경영전략

- 매출과 외형 중심에서 내실 위주로 전환하고, 하도급 비율 증가 억제 및 공동도급을 확대하며, 수주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문화 전략을 수립하고, 현금흐름이 양호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여여 함.

2) 경영기법

- 투자개발형사업의 타당성과 수익성 분석기법을 개선하고, 사업의 수행성과(투입비용과 업무수행량) 분석방법 등 중간평가방법을 개발하며, 선진 건설기업의 사업회계(Project Accounting) 관리방법의 도입 및 응용이 요구됨.

3) 회계 및 금융관리

- 위기관리체제로 경영체제 전환, 공사 일정과 자금소요 시기의 연계, 금융비용을 주요 관리항목으로 선정, 그리고 신용도 평가치 제고를 위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4) 인력 및 자재관리

- 인력관리 및 근로자 수급관리 기술 개발, 원가 절감을 위한 근로자 임금 절감, 관리직 인력의 최소화 및 현장중심으로 전환, 그리고 건설자재 조달부문에서의 원가절감 적극 모색이 요구됨.